세종대왕의 꿈과 예수님의 꿈

(마17:1~8)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종대왕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변화산 체험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초점이 맞춰질 부분은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제안과 그 베드로의 제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부분에 중점적인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게 됩니다.

특별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이 간단한 명령어, 명령형의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1215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근대헌법의 토대가 되는 대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게 바로 대헌장 아니에요?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허황되고 악의에 찬 유토피아의 꿈을 담은 공산당 선언이 또 발표됩니다.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의미에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세종대왕이 꿈꾸는 세상과 겉으로 보기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대왕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특별히 세종대왕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 할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걸 쉽게 풀어내면,
‘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 뜻을 담아서’ 말하고 싶은 것이 속에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체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 문장의 명령형의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신 겁니다.
아예 나타내고 표현해야 될 자기 속내가 없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있는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세종대왕은 자기가 뜻한 바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거라면, 예수님이 꿈꾼 것은 어떤 글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표현하고 드러내야 될 뜻을 아예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체험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텐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는 게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는 자리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숨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자아, 총체적인 자아를 말해요, 전인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랐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 같으면 나라의 독립이고, 신하의 자리로 영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성공을 뜻하고 꿈꾸고 소원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이 세상 안에서 뜻한 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한 바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인정을 해 버리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갔더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 전까지 이 세상 안에서 뜻한 바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전혀 뜻 밖에, 뜻 밖에, 내가 뜻한 바 밖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와 닿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변화산 체험을 통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오는 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마는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면 뜻 밖에 - 내 뜻은 세상 안에 머물고 있어요. 안에서 잘되고, 안에서 성공하고, 안에서 개선되고, 이 세상 안에서 - 그런데 뜻 밖에 천국이, 이 세상에서는 발견 될 수도 없고 어떤 뜻을 가져도 이룰 수도 없는 그 천국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구름이 덮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본문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두개가 대비가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3절에 보시면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헤까닥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그 광경이 쇼킹할 정도로 좋아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산 아래 뜻하며 살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문을 엽니다, '주님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들어라,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에요 여러분, 이'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홀연히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 구름, 이것이 항상 문제에요 성경에서.
이 구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에 가려져 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에 걸쳐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뜻이 담겨있는 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꿈꾼 게 뭐라고요?
그 뜻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모든 사람이 아는 세상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뭐라고 우리에게 한정을 지어주느냐 하면,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뜻을 담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름이 덮여버렸어요, 제자들에게, 구름 아래 있는 자들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돼요.
뜻하는 바를 표현하는 글자를 갖기는커녕 그 이전에 아예 뜻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름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 권한이에요.
구름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을 하면 안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갖고 구원을 얻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름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을 하면 안돼요.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그러면 이 39권의 언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모세5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5경의 말씀은 모세가 쓴 거예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구름 위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아래 남아 있을 때에,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계약의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구름 위에서 듣고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름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구름 위에 있는 자만이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뜻이 담긴 말은 구름 위에서만 샘물처럼 생산되어져 나올 수 있고, 구름아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구름아래 세상으로, 구름은 하늘과 땅을 갈라주는 경계 표시였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구름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구름 위에 있던 분이 구름 아래로 내려왔을 때, 구름 위에 계실 때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구름 위에서는 말씀 자체였던 분이 구름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 되어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러므로 말씀이신,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사셨느냐?
구름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수입해 들여와서 전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세종대왕은 여러분, 훈민정음 서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든 백성이 자기가 뜻하는 바를,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요새 훈민정음에 관한 한글창제를 둘러싼 조선시대의 사대부와 세종대왕 측근들의 갈등을 묘사한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계기로 많~은, 한글에 대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평가들이 막 뉴스에 소개되고 있어요.
세계 제1의 글자래요, 모든 면에서 세계 1의 글자래요.
근데 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작가들의 이 창의력 상상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종대왕의 적대자가 비밀리에 연구해오고 완성되어진 세종대왕의 이 한글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세워가며 세종대왕의 대적의 참모들이 연구를 해서 이 한글의 운영원리를 발견해 냅니다.
그리고 그 대적에게 소개를 하게 될 때, 대적이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참모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아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러니까 참모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한 번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뜻하는 바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때 대적이 말해요, '이도(세종대왕의 이름이었어요)가 만들어낸 이 스물여덟 자, 불과 스물여덟 자의 이 글자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글자다!'
아~! 막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와.

사대부 집안의 사대부노릇을 해 먹으려면, 한자 5만자를 알아야 됩니다.
5만자를 안다고 모든 뜻을 다 표현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스물여덟 자 기호만 알아내면, 10만자 20만자의 한자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뜻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낸 겁니다.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 자중에 제일 훌륭하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못한 자가 없다'는 것처럼 세종대왕의 한계는 천국을 몰랐던 겁니다.

천국을 아는 자들, 주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감으로 뜻밖에, 이 세상에서 뜻한 바와는 상관도 없는 천국을 갖게 될 때, 돈 문제 때문에 따랐건 무슨 문제 때문에 따랐건 뜻밖에 천국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천국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 아래 사는 동안에 내가 뜻한 바를 표현해내며 산다는 것은 신앙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 구름 아래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로는 오직 구름 위에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에요.
이 구름 아래서는 뜻한 바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을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꾼 세상이에요.

아마 창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을, 뜻한 바를 표현하는, 표현하며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자기가 뜻하고 스스로 뜻한 바를 표현해 내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뜨는 세상이지요,'

이게 바로 선악과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선악과 존재의 의미였어요.
그럼 아담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아담에게도 언어가 있었어요.
아담의 언어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 뜻한 바를 가지고 그 뜻한 바를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언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뜻한 바를 듣고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뜻한 바의 말씀을 수입해 들여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언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찬양하기 위해 언어를 입에 넣어 주셨고, 감사하라고 언어를 넣어주셨던 겁니다.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이걸 계획해야지, 이걸 소원해야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이러한 뜻한 바의 언어를 가지고 구름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뜻한 바는 구름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 것인데, 그 들려오는 말씀을 이해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라고 언어를 주셨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범사에게 감사하라고 언어를 주신 거라는 얘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천국을 본 자들은 이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뜻 밖에 천국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가지고 구름 아래 사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들을 수밖에 없고, 내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언어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종대왕의 꿈, 천국을 모르는 분의 꿈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몰랐습니다.
천국을 아는 자들의 세상에서 가장 못한 자보다도 더 안 된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꿈.
구름 아래서는 뜻한 바를 표현해내는 글자를 갖는 그 세종대왕의 꿈과 반대해서,
'아예 뜻하는바 자체를 마음에서 없애라, 오직 너 인생을 위하여 뜻하는 바는, 구름 위에서 아래로 들려질 수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변화산 체험을 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긴 세월,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스스로 뜻하며 살았습니다.

뜻한 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뜻밖의 천국을, 십자가까지 예수님 따라가 내 마음이 갖게 하시며, 천국 가진 자로서 구름 아래 사는 동안 뜻한 바가 아예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